
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 | |
|--------------|----|
| 1. 거액결제시스템 | 3 |
| 2. 소액결제시스템 | 8 |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10 |
| 4. 증권결제시스템 | 11 |

1. 거액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원화자금)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 금융망의 2023년 중 일평균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554.6조 원을 기록했다¹⁾(표 I -1).

표 I-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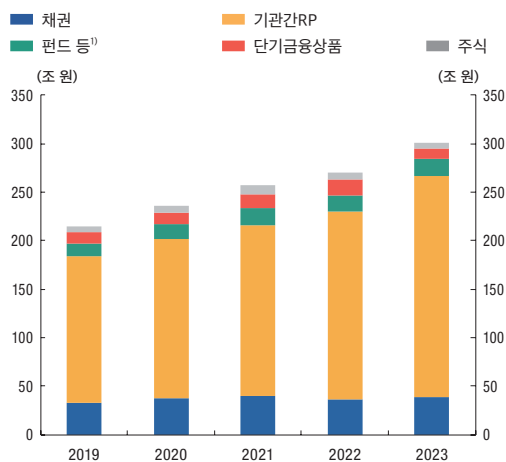
|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원화자금 합계 | 488.5 | 524.3 | 554.6 | 5.8 |
| 참가기관 간 | 465.4 | 497.3 | 533.3 | 7.3 |
| 콜거래자금 | 20.6 | 23.1 | 28.0 | 21.6 |
| 증권거래자금 | 257.4 | 269.9 | 301.2 | 11.6 |
| 외환거래자금 | 14.5 | 16.8 | 19.2 | 13.9 |
| 고객거래자금 ¹⁾ | 73.6 | 79.5 | 79.2 | -0.4 |
| 차액결제자금 ²⁾ | 25.9 | 27.5 | 27.0 | -1.9 |
| 기타 | 73.4 | 80.6 | 78.8 | -2.2 |
|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³⁾ | 23.1 | 27.1 | 21.3 | -21.3 |
| 외화거래자금 합계 (십억 달러) ⁴⁾ | 1.1 | 1.6 | 1.2 | -26.0 |

주: 1)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액의 자금, 연계결제 포함
 2) 소액결제에 따른 참가기관 간 채권 채무의 차액결제
 3)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4)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증권거래자금²⁾ 결제금액은 보험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³⁾ 영향에 따른 기관간RP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그림 I -1).

그림 I-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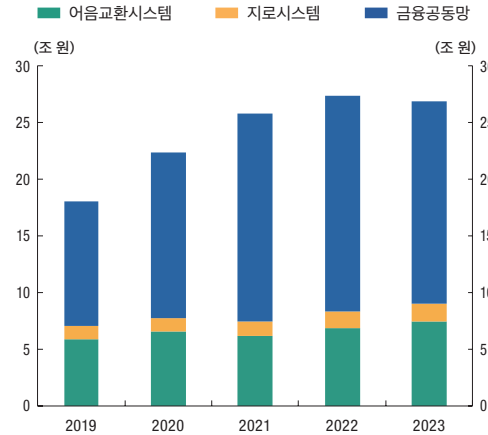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⁴⁾ 결제금액은 거주자 및 외국인의 증권투자 매매 확대 등에 따른 외환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표 I -1).

- 1) 2023년 중 한은금융망의 결제 건수는 일평균 23,289건으로 전년(23,290건) 수준이었다. 2023년 말 기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수는 총 133개(은행 53, 비은행 80)이다.
- 2) 증권대금동시결제(DvP)와 분리결제 및 채권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 거래도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해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용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 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 3)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2022.11월)으로 보험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용 RP매도를 허용했다. 이에 채권매매 및 RP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한은금융망 신규가입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했다(22.6월 말 11개 → 22년 말 16개 → 23년 말 19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9% 감소⁵⁾한 27.0조 원을 기록했다(그림 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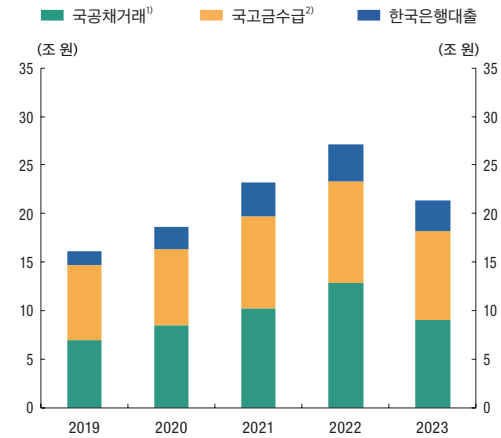
그림 I-2.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 증권시스템⁶⁾을 통한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⁷⁾금액은 일평균 21.3조 원으로 국세수입 감소⁸⁾등에 따라 전년대비 21.3% 감소했다(표 I-1, 그림 I-3).

그림 I-3.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규모(일평균)



주: 1)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환매 포함)

2)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 수납 등)만 포함

자료: 한국은행

(외화거래자금)

한국은행은 외화예수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자금을 이체, 예치, 인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중 일평균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12.1억 달러로 거주자 외화예금 감소⁹⁾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0% 감소했다(표 I-1, 표 I-2).

표 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백만 달러, %)

|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이체 | 0.1 | 0.2 | 0.2 | 0.2 | 0.4 |
| 예치 | 510.5 | 568.4 | 823.7 | 583.3 | -29.2 |
| 인출 | 491.1 | 559.5 | 812.8 | 626.9 | -22.9 |
| 합계 | 1,001.7 | 1,128.1 | 1,636.6 | 1,210.4 | -26.0 |

자료: 한국은행

4) 외화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 것을 말하며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자금이체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로 구성된다.

5) 금융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율이 둔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I-3> '최근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 배경'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1>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의 기능 및 리스크 관리'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8) 2023년 중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395.9조 원)대비 13.1% 감소한 344.1조 원을 기록했다.

9) 2023년 말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8.8억 달러로 전년 말(1,109.8억 달러)대비 6.4% 감소했다.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중 일중 일시 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3,4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표 I-3).

표 I-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일중당좌대출 ¹⁾ | 633.2 | 881.1 | 841.9 | -4.4 |
| 일중RP | 2,858.9 | 2,143.6 | 2,501.0 | 16.7 |
| 합계 | 3,492.1 | 3,024.7 | 3,342.9 | 10.5 |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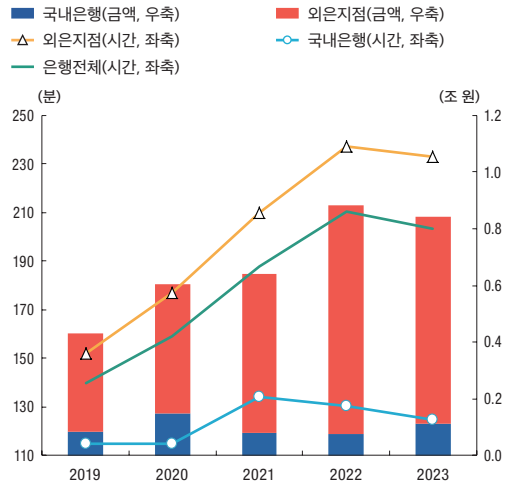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에게 대출 방식으로 결제자금의 종류 구분 없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중 참가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일평균 8,419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은행 그룹별로 보면 국내은행(1,108억 원)은 전년에 비해 45.7% 증가했으나, 외은지점(7,310억 원)은 9.2% 감소했다(그림 I-4).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7분 축소된 일평균 203분을 기록했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125분)의 이용시간이 전년대비 6분, 외은지점(233분)은 4분 줄어들었다(그림 I-4).

그림 I-4. 일중당좌대출 이용규모¹⁾ 및 시간²⁾(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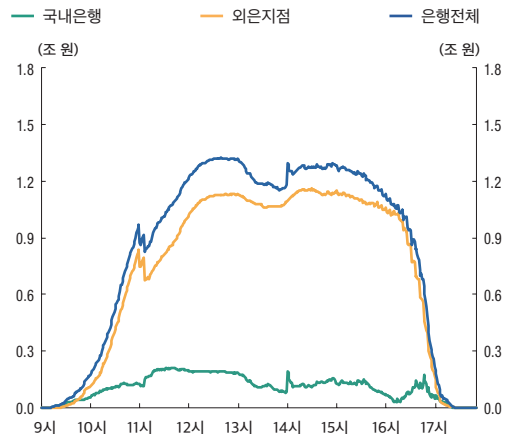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참가기관별 자금 공급시간의 합계 기준(예: 참가기관이 일중당좌대출을 11~12시, 14~15시에 이용한 경우 120분)

자료: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잔액추이를 살펴보면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시간대에 빠르게 증가한 뒤 마감 시간대인 16시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전액상환 되었다. 한편 잔액의 일중 최고치는 12시 39분으로 1조 3,214억 원을 기록했다(그림 I-5).

그림 I-5. 일중당좌대출 잔액¹⁾(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의 분당 잔액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일중RP제도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게 RP방식으로 일종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중 일평균 일중RP 이용규모는 일중RP 공급 대상¹⁰⁾인 장내·외 국채 및 통안증권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일평균 2조 5,010억 원을 기록했다(표 I-4).

일중RP 이용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결제의 절반 이상이 오전 중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오전 중 급격히 증가하여 11시 14분에 최고치(5,452억 원)를 기록한 후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잔액 상환되었다(그림 I-6).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¹¹⁾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¹²⁾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비율은 4.9%로 전년(4.1%)보다 소폭 상승¹³⁾했으며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0.9%로 전년(23.0%)대비 하락했다(표 I-5).

표 I-4. 일중RP 이용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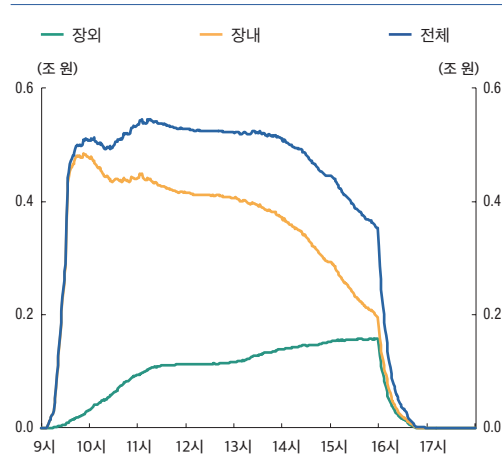
(십억 원, %)

| | 2022 | | | 2023 | | | 증감률 |
|---------------------|---------|-------|---------|---------|-------|---------|------|
| | 장내 | 장외 | 계 | 장내 | 장외 | 계 | |
| 한국거래소 ¹⁾ | 1,520.7 | - | 1,520.7 | 1,790.0 | - | 1,790.0 | 17.7 |
| 금융투자회사 | 285.5 | 337.4 | 622.9 | 310.3 | 400.6 | 711.0 | 14.1 |
| 합계 | 1,806.2 | 337.4 | 2,143.6 | 2,100.4 | 400.6 | 2,501.0 | 16.7 |

주: 1) 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국채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는 증권결제 원활화를 위해 일중RP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일중RP 잔액¹⁾(일평균)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표 I-5.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및 대기비율 추이 (금액 기준)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¹⁾ | 21.3 | 23.5 | 20.3 | 23.0 | 20.9 |
| 대기비율 ²⁾ | 4.1 | 3.3 | 3.7 | 4.1 | 4.9 |

주: 1) 참가기관 중 은행의 일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2)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되는 거래 제외)

자료: 한국은행

10) 일중RP 공급 대상은 금융투자회사가 장내 국채시장(한국거래소가 운용) 및 장외 채권시장에서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안증권을 단순매매한 거래이다.

11)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 신청을 대기파일에 수록했다가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수취 등으로 당좌예금잔액이 충분해지면 처리한다. 대기비율은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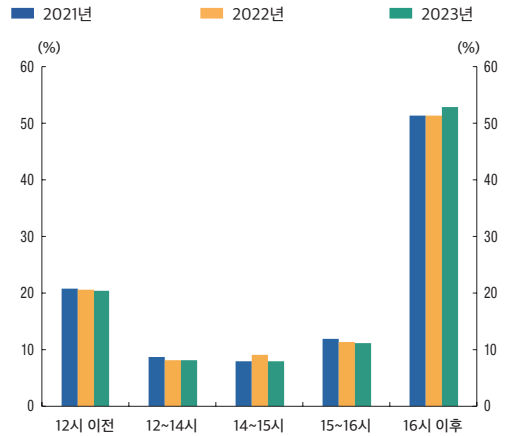
12)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중당좌대출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적격담보를 납입한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자동 실행되고 있다.

13) 대기금액의 대부분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는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유동성을 상시 충분히 보유하지 않는 가운데 기관간RP 등으로 결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금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2023년 중 52.8%로 전년(51.2%)보다 소폭 상승했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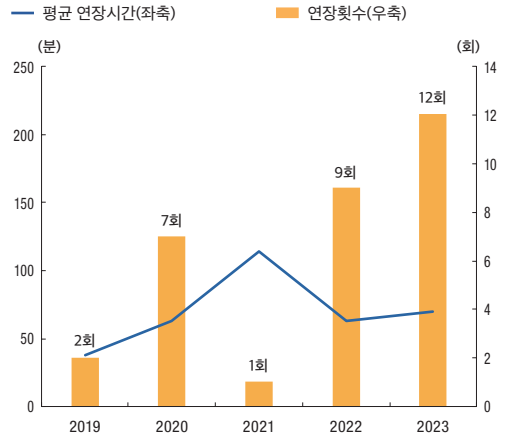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12회로 전년(9회)에 비해 증가했다. 연장 사유로는 전산장애,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관련 업무처리 등이었다. 전산장애 및 유동성 부족으로 한은금융망 연장을 초래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환기 조치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그림 I-8).

그림 I-7.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¹⁾(금액 기준)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I-8.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횟수 및 평균 연장 시간



자료: 한국은행

2. 소액결제시스템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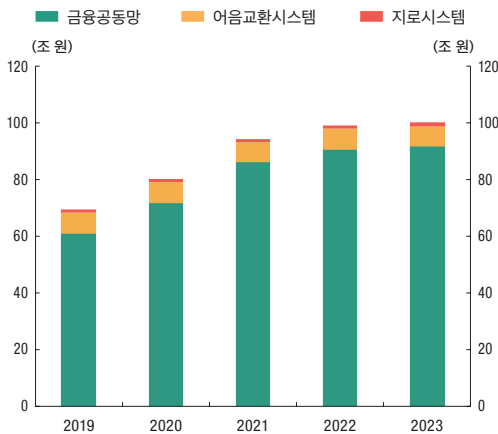
- 결제 동향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2023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¹⁵⁾는 일평균 3,988만 건, 100.1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0.8% 증가했다(표 I-6, 그림 I-9).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3,571만 건, 91.6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7%, 0.9% 증가했다.¹⁶⁾ 한편 금융공동망 내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전년에 이어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표 I-6).

그림 I-9.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14)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중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15) 금융공동망(타행간 자금이체) 및 지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각각 의미한다.

16) 금액 기준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금융공동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 등)의 자금이체 금액 증가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3> '최근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 배경'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 건수 | 금융공동망 | 28,319 | 31,971 | 35,714 | 11.7 |
| | (전자금융공동망) | 19,041 | 21,333 | 23,938 | 12.2 |
| | (타행간공동망) | 254 | 238 | 231 | -3.1 |
| | (오픈뱅킹공동망) | 3,908 | 5,234 | 6,310 | 20.6 |
| | (CD공동망) | 1,064 | 967 | 892 | -7.8 |
| | 어음교환시스템 | 175 | 154 | 114 | -26.2 |
| | (자기앞수표) | 170 | 150 | 110 | -26.8 |
| | (어음 등 ¹⁾) | 4 | 3 | 3 | -12.1 |
| | 지로시스템 | 4,120 | 4,104 | 4,050 | -1.3 |
| | (일반이체) | 659 | 601 | 560 | -6.8 |
| | (자동이체) | 3,073 | 3,093 | 3,062 | -1.0 |
| | (대량지급) | 354 | 380 | 401 | 5.8 |
| 합계 | 32,614 | 36,230 | 39,878 | 10.1 | |
| 금액 | 금융공동망 | 86,201 | 90,765 | 91,602 | 0.9 |
| | (전자금융공동망) | 78,757 | 83,473 | 84,283 | 1.0 |
| | (타행간공동망) | 5,504 | 4,885 | 4,622 | -5.4 |
| | (오픈뱅킹공동망) | 853 | 1,364 | 1,709 | 25.3 |
| | (CD공동망) | 655 | 584 | 514 | -11.9 |
| | 어음교환시스템 | 7,039 | 7,340 | 7,232 | -1.5 |
| | (자기앞수표) | 916 | 961 | 846 | -11.9 |
| | (어음 등 ¹⁾) | 3,437 | 3,678 | 3,198 | -13.0 |
| | 지로시스템 | 1,098 | 1,174 | 1,237 | 5.4 |
| | (일반이체) | 408 | 427 | 439 | 2.9 |
| | (자동이체) | 396 | 427 | 450 | 5.4 |
| | (대량지급) | 286 | 314 | 343 | 9.2 |
| 합계 | 94,338 | 99,279 | 100,071 | 0.8 | |

주: 1)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는 자기앞수표, 어음 등이 5만원권,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으로 대체되며 일평균 11만 건, 7.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2%, 1.5% 감소했다(표 I-6).

지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를 보면, 건수는 일평균 405만 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나 금액은 1.2조 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표 I-6).

결제리스크 관리¹⁷⁾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고객 간 자금이체 거래 건수는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은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지정 시점에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설정 규모는 2023년 말 97.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7.2% 증가했다(표 I-7).

2023년 중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6.1%로 전년(15.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9회로 전년(80회)보다 크게 감소했다(표 I-8).¹⁸⁾

한편, 참가기관들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담보제공비율)만큼의 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2023년 말 현재 담보인정금액은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설정규모 증가 및 담보제공비율 인상(70% → 80%)¹⁹⁾ 등으로 전년 말(57.6조 원)보다 24.6조 원 증가한 82.2조 원을 기록했다.

표 I-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¹⁾ 현황

(기말 기준, 조 원, %)

|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은행 등 직접참가기관 | 64.2 | 71.7 | 91.8 | 28.1 |
| 위탁기관 | 4.4 | 4.7 | 5.3 | 13.2 |
| 금융투자회사 | 2.1 | 2.1 | 2.2 | 4.8 |
| 서민금융기관 ²⁾ | 2.3 | 2.5 | 3.0 | 20.4 |
| 합계 | 68.7 | 76.4 | 97.1 | 27.2 |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표 I-8.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 회)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¹⁾ | 17.2 | 17.6 | 18.3 | 15.9 | 16.1 |
|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 83 | 109 | 171 | 80 | 39 |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17)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4>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8) 2023년 중 국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3.3조 원)이 전년(15.6조 원)대비 감소함에 따라 관련 청약 및 환불 자금이동이 줄어들고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설정 규모가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19) 한국은행은 2023년 8월 1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인상했다.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외환결제는 CLS시스템²⁰⁾,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킹,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2023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²¹⁾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889억 달러를 기록했다(표 I-9).

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²²⁾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²³⁾

결제리스크 관리

2023년 중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 리스크를 낮추는 외환동시결제 비중(77.9%)은 전년(77.0%)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그림 I-10).

한편, 2023년 중 CLS시스템의 다자간 차감방식에 따른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유동성 절감비율²⁴⁾은 95.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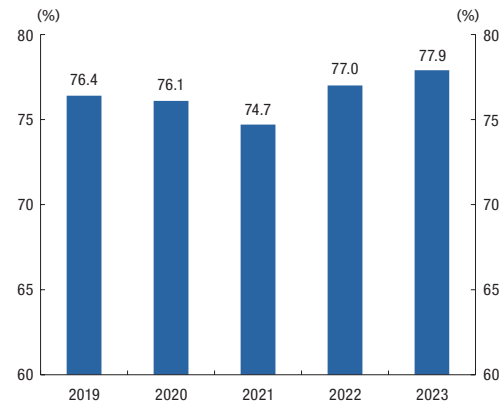
표 I-9. CLS시스템 결제규모¹⁾(일평균)

| (십억 달러, %) | | | | |
|------------|------|------|------|-----|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72.4 | 75.3 | 86.5 | 88.9 | 2.8 |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다자간 차감 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0.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¹⁾²⁾(일평균)



주: 1) CLS결제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20) CLS시스템은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시~12시)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결제대상 외환거래로는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등이 포함된다. CL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6>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21)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22) 2023년 말 기준 국내기관(국내은행 17개 및 금융투자회사 12개), 외국기관(국내 소재 외은지점 19개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1개) 및 해외기관(해외 소재 외국은행 및 외국금융투자회사)으로 구분했다.

23) 그 다음으로 국내기관 간 결제(30.5%), 외국기관 간 결제(20.6%), 국내기관과 해외기관 간 결제(6.4%), 외국기관과 해외기관 간 결제(0.7%) 순이었다.

24) 결제유동성 절감비율(%)=[1-(실제 납입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 (유동성 절감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4. 증권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2023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68.3조 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일평균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채권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3.3조 원을 기록했다. 또한 일평균 장외거래 결제규모는 단기금융상품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RP 결제규모의 큰 폭 증가(+17.7%)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13.3% 증가한 265.0조 원을 기록했다(표 I -10).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²⁵⁾는 한은금융망과 증권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DvP) 운영 등으로 2023년 중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거래당사자(CCP) 역할을 수행하는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주식 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표 I -11).

기관간RP 및 장외채권 거래의 경우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 비중이 전년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되었다(표 I -12).

25) 증권결제시스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표 I-10.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십억 원, %)

| 구분 |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장내결제 | 주식 | 945 | 682 | 685 | 0.5 |
| | 채권 ¹⁾ | 2,568 | 2,097 | 2,475 | 18.0 |
| | 파생금융상품 | 135 | 148 | 132 | -10.9 |
| 소계 | | 3,648 | 2,928 | 3,292 | 12.5 |
| 장외결제 | 주식 ²⁾ | 1,108 | 830 | 844 | 1.7 |
| | 채권 ³⁾ | 12,120 | 9,837 | 10,551 | 7.3 |
| | 기관간RP | 180,953 | 198,072 | 233,102 | 17.7 |
| | 단기금융상품 ⁴⁾ | 13,338 | 14,633 | 9,420 | -35.6 |
| | 펀드 등 ⁵⁾ | 10,424 | 10,382 | 10,931 | 5.3 |
| | 파생금융상품 ⁶⁾ | 65 | 145 | 122 | -16.1 |
| 소계 | | 218,008 | 233,900 | 264,971 | 13.3 |
| 합계 | | 221,656 | 236,827 | 268,263 | 13.3 |

주: 1) 국제(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대금

6)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 IRS 결제금액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 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 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표 I-1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건)

| 구분 | 결제시한 ¹⁾ | 기준시한 ²⁾ | 2021 | 2022 | 2023 |
|-------------|--------------------|--------------------|------|------|------|
| 장내주식 | 16:00 | 16:00 | 0 | 0 | 0 |
| 장내국채 | 16:00 | 17:00 | 2 | 0 | 0 |
| 주식 기관투자자 | 16:50 | 16:50 | 2 | 0 | 0 |

주: 1) 시스템 운영 규정상의 납부시점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자료: 한국은행

표 I-12.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¹⁾²⁾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기관간RP | 5.7 | 5.9 | 5.9 | 5.5 | 4.3 |
| 장외채권 | 9.3 | 9.7 | 9.5 | 6.2 | 2.7 |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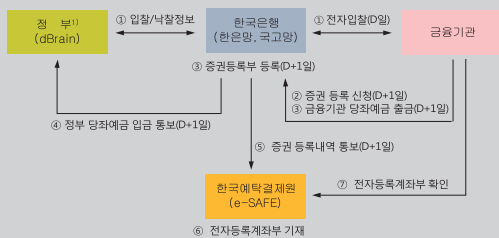
참고 1-1.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의 기능 및 리스크 관리

기능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및 국채¹⁾의 발행·상환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국채 발행·상환에 22개 금융기관이, 통안증권 발행·상환에 22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 금융기관은 정부, 한국은행에 의해 각각 선정되며, 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은행 증권시스템 업무 프로세스(발행 기준)



주: 1) 정부와 한국은행 간 연계처리는 국채에 한함
자료: 한국은행

증권발행은 입찰, 대금결제, 등록의 과정을 통해 완료되며, 모든 과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입찰 과정

을 통해 증권발행에 응찰한 참가기관별 낙찰규모가 확정된다. 해당 결제대금은 익일(D+1일) 참가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출금(자금결제)되며,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 등록부²⁾(이하 '등록부')에 발행내역이 전자적으로 기재(증권결제)된다.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의 증권결제는 등록부 등록을 통해 처리된다. 등록이란 증권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은 권리자는 등록부를 통해 원리금 수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행 등록부는 고객계좌별로 구분 관리하며, 증권발행 시 해당 고객계좌부에 등록내용을 기재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³⁾) 시행(2019.9월)으로 증권은 전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안증권과 국채 발행 관련 등록은 예외 조항을 통해 한국은행이 계속 담당하고 있다.⁴⁾ 이에 따라 통안증권과 국채는 한국은행 등록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하여 발행하며,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금융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각 매수자 명의로 전자등록한다. 참고로 유통시장 매매거래를 통해 통안증권과 국채의 권리자 혹은 권리관계가 변경될 경우, 결제는 나머지 증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등록부가 아닌 전자등록계좌부 등록을 통해 처리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등록부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발행인관리계좌부의 일일 잔

1) 국채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에 한한다(2023년 말 현재).

2) 등록발행이 원칙이지만 전사·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등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실물증권 발행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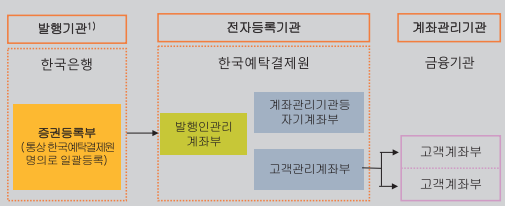
3)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4) 전자증권법에서는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도록 하되, 통안증권 및 국채의 등록은 국채법상 국채사무처리기관인 한국은행이 종전과 같이 수행하도록 했다(법 제72조).

액대사를 수행하며, 한국은행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발행인관리계좌 기재내용에 우선한다(전자증권법 제21조).

통안증권 및 국채의 원리금 상환 시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개별 권리자별로 상환한다. 자금결제와 동시에 해당 상환내역은 한국은행 등록부에 전자적으로 기재된다.

통안증권·국채의 등록체계



주: 1) 국채의 경우 발행사무처리기관을 지칭
 2) 전자등록계좌부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고객계좌부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2022」 일부 수정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 발행의 경우 결제리스크는 증권을 등록부에 등록했는데 낙찰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원금리스크)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입금되지 않는 상황(유동성 리스크)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원금리스크는 참가기관의 예금계좌에서 결제대금⁵⁾을 출금한 직후 증권을 등록하는 DvP 결제방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정책을 통해 참가기관의 일중 일시결제자금 부족을 관리하고 있으며, 증권시스템 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3년 중 통안증권, 국채 발행 시 모두 기준시한(17:0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는 등 결제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국은행은 결제실패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전산장애 및 유동성 부족 등 일시적으로 결제지연 징후를 보이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도 결제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환기 조치, 담당직원 교육 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건)

| | 결제 시한 ¹⁾ | 기준 시한 ²⁾ | 2022 | 2023 |
|------|---------------------|---------------------|------|------|
| 통안증권 | - | 17:00 | 0 | 0 |
| 국 채 | 15:50 | 17:00 | 1 | 0 |

주: 1) 증권 입찰공고문 내 결제시한
 2)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업무 마감시한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5) 일반적으로 건별 총액 방식으로 결제한다. 다만 국채교환(국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기존에 발행된 국채와 교환하는 제도)에서는 참가기관별로 발행자금과 상환자금을 각각 합산한 후 그 차액을 결제한다.

참고 1-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1),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23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건수는 일평균 49.3만 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처리 금액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일평균 22.3조 원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했다.

국고전산망 처리 규모(일평균)

(천 건, 조 원, %)

| | | 2022 | 2023 | 증감률 |
|----|--------------------|-------|-------|-------|
| 건수 | 실시간 전자이체 | 43.4 | 45.0 | 3.8 |
| | 파일 송수신 (국고금 수납) | 438.5 | 448.0 | 2.2 |
| | (국세 환급) | 364.1 | 373.3 | 2.5 |
| | | 74.4 | 74.7 | 0.5 |
| | 합계 | 481.9 | 493.0 | 2.3 |
| 금액 | 실시간 전자이체 | 22.6 | 19.6 | -13.1 |
| | 파일 송수신 (국고금 수납) | 2.8 | 2.7 | -3.5 |
| | (국세 환급) | 2.4 | 2.3 | -5.5 |
| | | 0.4 | 0.5 | 7.8 |
| | 합계 | 25.4 | 22.3 | -12.1 |

자료: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안증권 발행·상환, 국공채 매매 또는 대차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상환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은행 회계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 국고전산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을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안증권의 발행규모는 129.6조 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고, 상환규모는 120.6조 원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했다.

통안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 원, %)

|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발행 | 144.1 | 125.4 | 104.7 | 129.6 | 23.8 |
| 상환 | 148.9 | 144.3 | 132.3 | 120.6 | -8.9 |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증권매매규모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크게 늘어났던 2022년에 비해 46.0% 감소한 685.4조 원을 기록했다.

1)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동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증권매매 및 증권대차(액면금액 기준)

(조 원, %)

| |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증권 매매 | RP매입 | 42.3 | 4.0 | 26.8 | 50.9 | 89.6 |
| | RP매각 | 662.5 | 908.6 | 1,235.3 | 634.5 | -48.6 |
| | 단순매입 | 11.0 | 6.0 | 7.0 | 0.0 | -100.0 |
| | 소계 | 715.8 | 918.6 | 1,269.1 | 685.4 | -46.0 |
| 증권대차(차입) | | - | - | (7.0) | (17.0) | 142.9 |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고채권 발행규모는 165.7조 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으며 상환규모는 105.2조 원으로 전년대비 40.7% 증가했다.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44.5조 원으로 전년대비 173.5% 증가했다.

국고채권,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 원, %)

| |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국고 채권 | 발행 | 174.5 | 180.5 | 168.6 | 165.7 | -1.7 |
| | 상환 | 59.2 | 63.6 | 74.8 | 105.2 | 40.7 |
| 재정 증권 | 발행 | 45.3 | 28.9 | 16.3 | 44.5 | 173.5 |
| | 상환 | 45.3 | 28.9 | 16.3 | 44.5 | 173.5 |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23년 말 기준 19.5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5조 원(-52.3%) 감소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¹⁾

(기말 기준, 조 원, %)

| | 2020 | 2021 | 2022 | 2023 | 증감률 |
|--|------|------|------|------|-------|
| 금융중개지원대출 | 32.5 | 37.8 | 39.3 | 19.4 | -50.5 |
|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²⁾)에 대한 대출 | 1.8 | 2.5 | 1.7 | 0.1 | -94.3 |
| 합계 | 34.3 | 40.3 | 41.0 | 19.5 | -52.3 |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참고 1-3.

최근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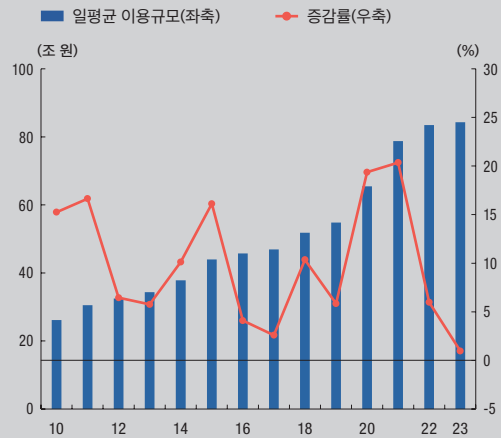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 등 비대면 자금이체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 간 계좌이체 이용규모 증감률(전년동기대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10년(2010~19년) 간 9% 초반대를 유지했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선호,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이동 급증 등으로 2020~21년 중에는 약 20%대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 간 계좌이체 규모 증감률이 2022년 하반기 이후 크게 둔화¹⁾되고 있어 그 요인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 요인

먼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거래 재개, IPO(기업공개) 실적 축소에 따른 공모주 청약 자금이동 급감²⁾ 등 코로나19 전후 기저효과가 최근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민간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 이용규모 증가율 둔화도 카드사의 판매자 앞 대금이체 증가폭 축소를 통해 펌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및 증감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결제원

한편 지급서비스 구조 측면에서 보면 자행 내 계좌이체 및 오픈뱅킹공동망 계좌이체의 지속적인 증가가 타행 간 계좌이체인 전자금융공동망 이용 수요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하반기 이후 한은금융망에 신규 가입한 보험사가 증가³⁾한 것도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폭 축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금융망 가입 보험사는 증권거래 등에 따른 자금이체의 상당 부분을 기존 전자금융공동망 대신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율은 향후 코로나19 전후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그 둔화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가 지급서비스의 구조적 변화에도 일부 영향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1) 타행 간 계좌이체 금액(일평균)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022년 상반기 10.4% → 2022년 하반기 2.0% → 2023년 1.0%

2) 공모주 청약 시 자금 유입은 주로 인터넷뱅킹으로, 청약환불금 지급은 펌뱅킹 및 기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IPO 실적 변동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자금융공동망 내 세부 서비스 이체금액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2022년 6월 말 11개에서 2023년 12월 말 19개로 대폭 증가했다.